

# Development of Traditional Cultural Products Using Persimmon Dyeing

Cho, Hyo-Sook · Kim, Sunkyung · Lee, Eun-Jin\*

Kyungwon University ·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purposed to restructure representative traditional patterns formatively, manufacture actual cultural products with traditional dyeing technique using persimmon, and commercialize the results of the research.

Traditionally in Korea, the dying of natural fiber such as cotton, flax and silk with persimmon was called Galmul dyeing, and clothes made through Galmul dyeing were called Galot. Galot was very useful because it is strong, does not pick up dirt easily, dries easily, and is cool in summer. In addition, cloth dyed with persimmon becomes stiff, so it does not need to be starched or ironed after washing. Moreover, it does not transmit heat under direct rays and is highly air permeable, so it is cool and useful for standing the heat.

In this study, we used traditional persimmon dyeing technique, printing traditional patterns fit for contemporary people's aesthetic sense not through dip-dyeing but through printing. When persimmon dyeing is used in expressing patterns, it produces not only visual effect but also embossing effect due to the characteristic of persimmon that makes printed patterns stiff, so we can obtain unique texture distinguished from other printing methods.

We chose eight motive patterns, which were lotus pattern symbolizing eternal life, peony pattern symbolizing wealth and rank and prosperity, character *Su*(壽) pattern widely used as a symbol of health, character *Su*(壽) pattern and Horo pattern on *Sukgosa*(熟庫紗), which is a representative fiber in the late Joseon Dynasty, bird and cloud pattern in the Goryeo Dynasty, *Sahapyeoeui*-

*sohwa*(四合如意小花) pattern printed on brocade in the Goryeo Dynasty, lattice pattern of old palaces, cloth pattern on wall paintings from the Period of the *Three Kingdoms*. From each pattern chosen as a motive was extracted unit patterns and the original pattern was restored using Adobe Illustrator. Restored patterns were restructured to be applied to cultural products fit for contemporary formative sense.

The method of pattern dyeing is as follows. Prepare a mixture of 50g of sodium alginate and 500c of water, add persimmon extracted from persimmon to the mixture as much as desired concentration, mix the solution thoroughly and stir on weak gas fire, mashing until there is no grain left in the solution. Put a silk screen plate, take a proper quantity of prepared dye, rub it with a squeegee carefully, dry it, steam for 30-45 minutes and dry it again.

Fabrics used in dyeing were cotton, oxford, linen, flax, ramie fabric, silk and artificial suede. Although the same persimmon dyeing was applied, we produced different feelings of patterns using various fabrics and in some cases gold and silver powder was added for the effect of gloss in addition to the embossing of patterns. Using printed fabrics we manufactured tea pads, place mats, cushions, lampshades, wrapping cloth for gifts. Tea pads and place mats were made of oxford and linen for practicality and harmony with bowls, and cushions for artificial suede for comfort and decoration, lampshades of cotton for practicality and decoration and wrapping cloth for gifts of silk for elegance.

## 감물염색을 활용한 전통 문화상품의 개발

조효숙 · 김선경 · 이은진\*

경원대학교 · 경원대학교 · 한성대학교\*

한국 패션의 새로운 도전과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의 전통미와 디자인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현대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당면 과제이다. 특히 전통문양은 시대적 생활감정, 미적 감각이 그대로 반영된 상징적 구상으로, 한국 전통문양은 우리 민족의 미의식을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매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문양을 응용·발전시켜 디자인의 개념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현대감각, 국제감각에 맞게 상품에 접목시키려는 실천의 과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는 대표적인 전통문양들을 조형적으로 재구성하고, 감물이라는 전통염색기법으로, 실제 문화상품으로 제작함으로써 연구결과를 실용화단계로 이끌어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면, 마, 견 등의 천연섬유에 꽃감으로 염색한 것을 갈물염색이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염색을 통하여 만든 의복을 갈옷이라고 칭하였다. 갈옷은 질기고 더러움이 잘 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에 젖어도 쉽게 마르며 여름에는 시원하여 매우 실용적이었다. 또한 감물로 염색하면 뻣뻣해지므로 세탁 후 풀을 먹이거나 다림질을 할 필요가 없으며 직사광선에서도 열이 전도되지 않고 통기성이 좋아 시원하므로 방서용으로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통 감물염색 방법을 이용하되, 침염이 아닌 날염을 통하여 현대인의 미적 감각에 맞도록 전통문양을 프린트디자인하였다. 이렇게 감물염색을 이용하여 문양을 표현하면 시각적 효과뿐만 아니라 프린트된 문양부분이 뻣뻣해지는 감물의 특성으로 요철효과가 생기므로 다른 날염방법들과는 차별화되는 독특한 재질감을 얻을 수 있다.

모티브로 선정된 문양은 영생(永生)을 상징하는 연화문(蓮花紋), 부귀와 번영을 상징하는 모란문, 건강을 상징하여 전통문양 중에서도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수자문(壽字紋), 조선 말기의 대표적인 직물인 숙고사의 수자문(壽字紋) 및 호로문, 고려시대의 새 및 구름문, 고려시대의 라(羅)에 시문된 사합여의소화문(四合如意小花), 고궁(古宮)의 창살문, 삼국시대 벽화에 나타난 의복의 문양 등 8가지이다. 이렇게 모티브로 선정된 각 문양에서 단위무늬를 추출하고 Adobe Illustrator 프로그램을 통하여 각각의 문양을 복원한 후, 복원된 문양을 문화상품들의 에 적합하도록 현대적 조형 감각에 맞추어 재구성하였다.

문양의 염색방법은 다음과 같다. sodium alginate 50g에 물 500cc의 비율로 섞은 용액과 꽃감으로 즙을 낸 감물을 원하는 농도만큼 넣어서 골고루 섞고, 약한 가스 불에서 알갱이가 없도록 계속 잘 으깨며 저어준다. 염색하고자 하는 원단 밑에 색이 배어 나오지 않도록 종이나 원단을 깔고 실크스크린 판을 놓은 후, 준비한 염료를 적당량 덜어 스퀴지로 잘 밀어 건조시키고, 30-45분 동안 스티밍하고 다시 건조시킨다.

염색에 사용된 소재는 광목, 무명, 옥스퍼드, 아마, 삼베, 모시, 노방, 인조스웨이드이다. 동일한 감물염색일지라도 소재를 다양하게 사용함으로써 문양의 느낌에 변화를 주었으며, 경우에 따라 문양부분의 요철효과 뿐만 아니라 광택효과를 위해 금·은박 가루를 첨가하여 소재의 다양성을 추구하였다. 이렇게 날염된 소재를 사용하여 문화상품으로 제작된 것은 다도용 차받침, 플레이트 매트, 쿠션, 전등갓, 예물용 보자기 등이다. 다도용 차받침과 플레이트 매트는 실용성 및 그릇들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옥스퍼드와 아마를, 쿠션은 편안함과 장식성을 고려하여 인조스웨이드를, 전등갓은 실용성과 장식성을 고려하여 광목을, 예물보자기는 품위를 고려하여 노방을 사용하였다.